캐나다 대초원 산불 확산 북미 공기질 '위험수준'

작년 2배 가까운 불길…기후변화 여파 의심
공중보건 위협 촉각…외출 자제 권고까지

대초원의 들불 때문에 하늘이 희뿌옇게 변한 캐나다 몬트리올. /로이터=연합뉴스

캐나다에서 산불이 확산하면서 북미 일부 지역의 공기질이 공중보건을 위협할 정도로 악화하고 있다.

캐나다산불센터(CIFFC)에 따르면 올해 캐나다에서 발생해 4일(현지시간) 현재까지 꺼지지 않는 산불은 745건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3분의 2 정도인 503건은 불길이 잡히지 않는 통제불능으로 분류됐다.

캐나다 대초원이 타들어 가면서 퍼져나간 연기와 먼지 때문에 캐나다와 미국의 공기는 심하게 오염되고 있다.

스위스의 공기질 기술업체 'IQ에어'가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세계 랭킹에서 캐나다, 미국 도시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공기질이 나쁜 순위에서 미국 디트로이트는 3위, 캐나다 토론토는 7위, 몬트리올은 11위를 달렸다.

토론토와 몬트리올 공기는 취약집단 건강에 해롭다고 평가됐고 디트로이트 공기에는 일반 대중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가 떨어졌다.

IQ에어는 캐나다 전역이 산불 때문에 공기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뉴욕, 미시간, 매사추세츠, 오하이오, 위스콘신, 코네티컷, 메인, 펜실베이니아, 미네소타 등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환경부의 기상학자 모니카 배스워니는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산불이 예년에 비해 심하다고 평가했다.

배스워니는 "최근 몇 년 동안 본 것과는 다르지 않지만 불행하게도 정상적인 것과는 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CIFFC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산불에 탄 대지의 면적은 670만㎡로 벌써 지난해 전체보다 82% 정도나 넓다.

캐나다천연자원부는 이 같은 추세가 평년보다 높은 기온, 심한 가뭄, 적설량 감소, 토양의 습도 저하 등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이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여파로 자주 거론되는 산불 확산의 전형적 여건이기도 하다.

북미 지역에서 점점 악화하는 공기질 악화는 슬슬 공식적인 공중보건 위험으로 부각되고 있다.

토론토와 근처 지역 당국은 노약자, 어린이, 심폐기능에 문제가 있는 이들 등 취약 집단에 외출 시간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기상학자 배스워니는 공기질 악화는 건강한 대중에도 위험 요인이라며 예방 차원의 실내 활동을 권장했다. /연합뉴스

'美이민당국 구금' 성공회 한인사제 딸 보석 석방

"법원, 석방 기간 이동 제한 명령"

미국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한국인 고연수(20)씨가 4일(현지시간) 보석으로 석방됐다.

미국 성공회와 한인단체에 따르면 고씨는 이날 오후 8시께 뉴욕 맨해튼 이민세관단속국(ICE) 청사에서 석방돼 가족과 재회했다.

고씨는 향후 석방된 상태에서 이민법원의 심리 절차를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석방 기간 고씨의 이동을 제한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성공회 뉴욕교구에서 아시아인 사역을 담당하는 어머니 김기리 신부를 따라 2021년 3월 종교 비자의 동반가족비자(R-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중이었다.

뉴욕주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퍼듀대에 재학 중인 고씨는 지난달 31일 비자 문제로 법정에 출석했다가 ICE 요원들에게 기습적으로 체포됐다.

성공회 뉴욕 교구와 현지 시민단체들은 고씨를 억류한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강도 높은 이민자 추방 정책의 영향 속에서 벌어진 행정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고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해왔다.

뉴욕 맨해튼 ICE 청사에 구금됐던 고씨는 이후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옮겨졌다가 석방 명령을 받고 이날 다시 뉴욕으로 이송됐다. /연합뉴스

월가 '美주가 하락' 경고음 나왔다

모건스탠리·에버코어 "10-15% ↓ 가능성"

미국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일 수 있다는 경고가 월가에서 나오고 있다.

주가가 많이 오른 데다 경제지표도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형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와 에버코어 ISI, 독일 최대 상업은행 도이체방크 등은 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이 향후 몇주 혹은 몇 달 내에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건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전략가는 미국 정부의 관세가 민간 소비와 기업 경영에 타격을 입히면서 이번 분기에 최대 10%의 주가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윌슨은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투자자들은 최근 몇 주간 3분기에 소폭 하락이 있을 것임을 예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에버코어ISI의 줄리언 이매뉴얼은 최대 15%의 하락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도이체방크의 파라그 타테 분석팀도 뉴욕 주식 시장이 3개월 넘게 강세를 보여 왔기 때문에 소폭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뉴욕 증시는 지난 4월 저점을 기록한 뒤 급등해 지금은 사상 최고치 수준이다.

최근 나오는 미국 경제 지표는 물가의 소폭 상승과 노동시장 약세, 소비 지출 약세를 보여준다.

뉴욕 증시가 연중 가장 약세를 보이는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점도 조정 예상의 근거가 됐다.

최근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부담이다. 주가의 상승·하락 압력을 나타내는 보조지표 주가상대강도지수(RSI)로 볼 때 S&P 500의 최근 14일 RSI는 76을 넘어섰다.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다. /연합뉴스

맹수 먹이로 반려동물 기부 요청 논란

덴마크의 한 동물원이 맹수 먹이로 반려동물을 기증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덴마크 올보르 동물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맹수들을 위한 먹이 기증을 요청했다. 동물원 측은 기증된 동물은 숙련된 직원들에 의해 안락사된 뒤 맹수들의 먹이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올보르 동물원의 이 게시물은 곧장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일부에서는 "덴마크에서 동물에 대한 무관심이 끔찍한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반려동물을 먹이로 주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지만, 찬성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연합뉴스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하루 앞둔 5일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평화공원 기념관 인근에 마련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추모 기념비'에서 방문객들이 한국인 희생자 추모식을 마친 후 기도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日히로시마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제

李대통령 "피해 동포·유가족 깊은 애도"

미국이 1945년 8월6일 일본 혼슈 서부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폭탄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추모하는 위령제가 5일 현지에서 엄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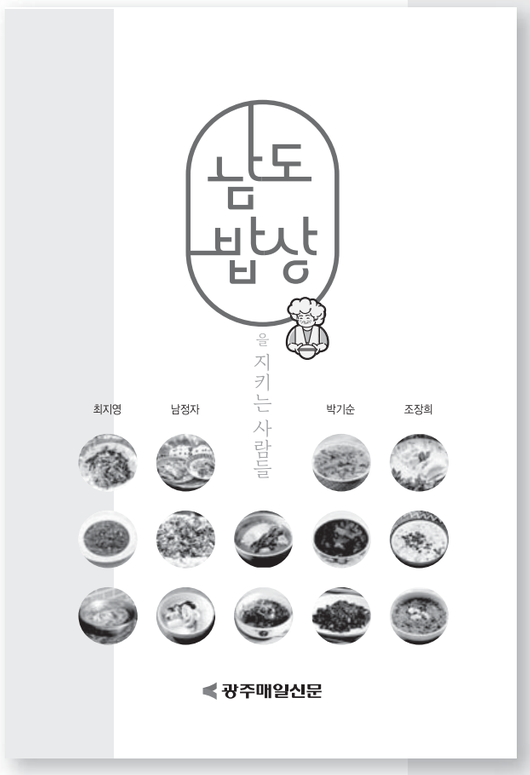
교도통신에 따르면 위령제는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앞에서 열렸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히로시마현지방본부 김기성 단장은 "원폭이 사람들과 거리를 얼마나 잔혹한 모습으로 바꿨는지 잘 알고 있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손잡고 세계 평화 실현에 공헌해 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위령비에는 지난 1년간 사망한 피폭자 10명을 포함해 한국인 사망자 2천824명의 명부가 봉납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폭 투하 80년을 맞아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았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주일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한국인 피해자는 사망자 약 4만명, 생존자 약 3만명 등 7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깔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매스컴)
정 가 20,000원